



## Program Note

#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Bruckner Symphony No.7)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7번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브루크너가 남긴 아홉 곡의 교향곡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곡은 브루크너 자신에게 큰 성공과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곡은 브루크너가 지극히 존경했던 선배 작곡가 바그너와도 관련이 있다.

브루크너가 이 교향곡을 작곡하던 1883년, 그는 그토록 존경하던 바그너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바로 그 때 바그너의 죽음을 애도하는 2악장의 테마를 생각해내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교향곡 제7번의 전 악장을 완성했다. 초연 당시에 이 교향곡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마도 이 교향곡에 특히 아름다운 선율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7번은 제1악장 첫 부분부터 대단히 아름답고 브루크너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시작한다. 브루크너는 교향곡을 시작할 때 현악기의 잔잔한 트레몰로(tremolo, 활을 빠르게 아래위로 움직여 잔물결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주법)로 시작해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곡에서도 처음에 바이올린이 조용히 트레몰로 연주를 시작하면 첼로와 호른, 그리고 나중에는 비올라가 끼어들면서 송고한 느낌의 선율을 연주한다. 브루크너를 깊이 연구했던 로버트 심슨이라는 학자는 이처럼 신비로운 1악장 도입부에 대해서 "우리를 매우 높고 빛나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선율을 들어보면 두 옥타브나 급격히 상승하는 첫 부분이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바그너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2악장 역시 대단히 송고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2악장 악보에는 '매우 엄숙하고 매우 느리게'(Sehr feierlich und sehr langsam)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이 곡은 엄숙하면서도 느리고 심오한 느낌을 전해준다. 브루크너는 2악장에서 바그너를 추모한다는 의미로 바그너와 관련된 특별한 악기를 사용했는데, 그 악기가 바로 '바그너 튜바'라 불리는 금관악기다. 바그너가 그의 음악극에서 사용했던 이 악기는 튜바와 호른의 음색을 섞어놓은 듯한 음색을 지니고 있으며,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악장에선 바그너를 추모하는 선율이 나올 때마다 4대의 바그너 튜바 연주가 들려온다.

제3악장은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전해주며, 제4악장에선 특히 클라이맥스로 향한 여정이 마무리되고 벅찬 환희를 느끼게 하는 종결부가 대단한 감동을 전해준다. 일찍이 지휘자 브루노 발터는 브루크너와 말러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브루크너는 이미 신을 찾았고, 말러는 끊임없이 신을 찾고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오늘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7번의 장대한 4악장의 결론에서 "신을 찾은 음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 공연시 주의사항

- 공연 중 휴대전화의 전원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 악장 사이의 박수는 실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연주자 및 곡목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와 우리은행이 함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 우리동네 음악회

2017. 6. 21(수) 저녁 7시 30분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Markus Stenz)

연주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Bruckner Symphony No.7)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관람료  
무료!

공연예약 **NAVER** 카페 관악뜨락음악회  
<http://cafe.naver.com/gwanakstage>

공연문의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 02-870-6603)



**지휘\_마르쿠스 슈텐츠(수석객원지휘자)**  
Markus Stenz, Conductor-in-Residence

**연주\_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20** 12년부터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를, 2015/16시즌부터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객원 지휘자를 맡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마르쿠스 슈텐츠는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그리고 할레 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를 지냈다. 쾰른 음대에서 볼터 반겐하임을, 탕글우드에서 번스타인과 오자와를 사사한 마르쿠스 슈텐츠는 몬테펠치아노 페스티벌 예술감독(1989년-1995년), 그리고 현대음악 앙상블로 이름이 높은 런던 심포니에타의 상임지휘자(1994년-1998년)를 지냈다. 그는 이외에도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1998년-2004년)하며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세계적 지휘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마르쿠스 슈텐츠는 2016/2017 시즌에 상파울루부터 동아시아까지 4개 대륙의 무대에서 지휘한다. 그는 2016/2017 시즌의 주요 활동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에서 9월 23일 2016/2017 시즌 첫 공연 시작) 무소르스키, 라프, 디펜브룩, 시마노프스키, 주이담, 존 애덤스가 편곡한 부소니 작품,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모차르트, 바그너 등 여러 레퍼토리를 연주할 예정이다.

베니스의 라 페니체에서 오페라 지휘자로 데뷔한 그는 이후로도 많은 세계 초연작들을 지휘했는데, 이에 베를린에서 지휘한 헨체의 오페라 '배반의 바다', 2003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원헌의 바버리안 주립 오페라단과 초연한 헨체의 '비너스와 아도니스'와 '루푸파'가 있다. 그는 밀라노의 라 스칼라, 브뤼셀의 라 모네, 영국 국립 오페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슈타트가르트 오페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글라인드번 페스티벌,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 브레겐츠 페스티벌(글라너트의 '솔라리스' 초연), 그리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와 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쾰른에서의 주요 오페라 활동으로는 바그너의 '반지' 시리즈, '로엔그린',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파르지팔', 그리고 야나체크의 '예누파'와 '카타 카바노바'가 있다.

그동안 지휘해온 주요 오케스트라로는 로열 콘서트헤바우, 원헌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닉,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WDR 라디오 심포니, NDR 라디오 필하모닉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시카고 심포니,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한 바 있다.

**72**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 이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리더십 아래 폭 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세계적 명성의 객원지휘자, 협연자와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상임작곡가이자 공연기획자문역인 진은숙, 부지휘자 최수열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탁월한 음악적 성과와 프로그래밍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향은 2007년 태국 및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날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2010년 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 투어, 2011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등 유럽 페스티벌 투어, 2012년 로스앤젤레스 등 북미 투어에서 기립박수와 호평을 받았다. 2013년 4월에는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국가대극원 무대에 올랐으며, 2014년 8월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영국 BBC 프롬스 공연은 현지 유력 일간지로부터 최고 등급의 평가와 함께 '깊은 감동을 주는 매우 품격 있는 연주'라며 찬사를 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 국가대극원과 일본 산토리올 초청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아시아의 주요 오케스트라로서 입지를 다졌다. 한편, 서울시향은 전문 공연장에서의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공익 공연을 펼쳐서 서울시민과 호흡하고 있다. 병원, 교도소, 구민회관 등을 방문하는 '우리동네 음악회',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펼쳐는 '어린이날 음악회', 한강변의 '강변음악회' 등 대형 야외공연은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그 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술학교'를 비롯하여 공연관람 고객을 위한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차세대 지휘자 양성을 위한 '지휘 마스터클래스', 작곡 전공생을 위한 '작곡 마스터클래스', 금관 연주자 양성을 위한 '바티 브라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전문 연주자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향은 2011년 아시아 교향악단으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5년 동안 매년 2장의 음반을 출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014년 <진은숙 3개의 협주곡>과 <말러 교향곡 9번>을 발매했으며 2015년 <말러 교향곡 5번>을 발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9장의 음반을 출시하였다. 특히 <진은숙 3개의 협주곡> 음반은 세계적 권위의 음반상인 국제클래식음악상(ICMA) '현대음악' 부문과 BBC 뮤직 매거진 '프리미어' 부문을 수상하였다.

2017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공연 안내

6월 21일(수) 19:30  
서울대학교 문화관  
마르쿠스 슈텐츠 / 전석무료

8월 23일(수) 19:30  
양천문화회관  
전석무료

8월 24일(목) 19:30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석무료

12월 23일(토) 17:00  
한국중앙교회(광진구)  
티에리 피셔 / 전석무료